



정치와 정치인, 그리고 우리네 삶

김윤호 주필·행정학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현대는 정치의 시대, 정치화의 시대(age of politicization)라고 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찍이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political animal)이라고 규정했다.

현대철학의 주류 분석철학 창시자요, 1950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이기도 한 영국의 철학자·역사가 버트런드 러셀(Bertrand Arthur William Russell) 경은 인간의 소망은 평화·자유·행복인데, 인간은 자연과의 싸움, 인간과의 싸움, 자기 자신과의 싸움, 세 가지 선한 투쟁을 하게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말년에까지 지치지 않고 반핵, 반전 등 사회운동을 계속했던 당대 최고의 명사였다.

정치란 무엇일까. 정치학자에 따라서 많은 개념과 정의(定義)가 있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자연과 사회가 배분할 수 있는 자원과 가치는 유한하다. 그래서 사회 있는 곳에 정치가 있지 않을 수가 없다. 인간의 불완전성과 복잡성에서 유래되는 인간과 인간의 대립·경합·투쟁을 적절하게 해결하여 사회의 통합을 이룸으로서 통일적인 질서를 형성·유지해 가는 것이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정치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국민들의 의사를 모아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고 집행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

런데 정치를 국가의 주인인 국민 모두가 일상적으로 나서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인류가 수 천년 피 어린 투쟁을 통해서 정취한 제도가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이다. 국가의 안전과 발전, 국민들의 행복과 이익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대표자, 심부름꾼을 뽑아서 급여를 주고, 4년 또는 5년의 임기가 끝나면 선거(투표)를 통하여 심판한다. 이것이 인류가 피 흘리면서 정취한 최고의 제도로서 창출된 대의(代議)민주주의이다.

국민을 위한 일을 하라고 뽑아준 심부름꾼, 대표자가 정치인이고, 그러한 일을 하겠다고 활동하는 사람이 정치인이다. 정치인은 대개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연줄(연줄)이 있거나, 많은 돈이 있거나, 높은 명예(지명도)가 있거나해서 전국적이거나 지역적으로 주민들·선거민들의 인정과 지지를 받아야 한다. 대개 정치인은 똑똑하고 돈도 있고 머리도 좋고 말도 잘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욕을 제일 많이 얻어 먹고 불신 받는 사람이 정치인이다. 말로는 가장 좋은 말, 가장 듣기 좋은 말, 가장 선한 말을 한다. 실제 행동은 정반대가 많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다른 언행 불일치, 위선(僞善)이 정치인들의 대명사가 되었다. 자기나 자기 집단에 대한 자애와 남이나 남의 집단에 대한 자애가 다르다. 입장이 바뀌면 자애도 정반대로 바뀐다.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이 시대적

칼럼

인 유행어가 되었다. 정치인들은 거짓말도 얼마나 교묘하게 잘 둘러대고 발뺌 꼬아서 말을 잘 하는지 감탄하게 만든다. 가방 끈이 짧거나 머리 나쁜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게 말을 잘 한다. 눈치도 빠르고, 도망(은둔)도 잘하고, 은폐도 잘하고, 부인도 잘하고, 얼굴도 두꺼워야 하고, 왜곡 조작도 잘 하고, 동문서답도 잘하고, 유체이탈(遺體離脫) 화법도 잘한다.

그런데 우리가 불신하고 혐오하고 환멸을 하는 정치와 정치인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가 없다. 정치는 우리가 바라든, 바라지 않든 우리 자신과 가족, 사회와 국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정치와 정치인이 싫어서 외면하고 무관심해도 우리 삶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멀리 무인 고도(孤島)나 깊은 산 속 움막집에 들어가서 살더라도 정치의 직접적·간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평소 정치가 싫고 정치인에 환멸과 혐오를 하고 욕을 하더라도, 정치와 정치인을 잘 살펴보고 선거 때가 오면 국가의 주권자(주인)로서 절대로 기권하지 말고 잘 잘못을 냉정하게 심판해야 한다. 지역·이념·세대·정파에 갇힌 편협된 투표를 해서서는 안된다. 듣기 좋은 일시적인 말(공약, 정책)이나 보여주기식의 그럴듯한 쇼(假飾)를 하는 사람 보다는, 평소 그 사람의 언행과 삶을 보고 지혜롭게 선택해야 한다. 위선에 속지 말고 차선(次善)이라도 선택해야 한다.

진정으로 국민과 주권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정직하고 능력있고 성실한 봉사자를 뽑아야 한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자치단체장이든, 지방의회 의원이든 한 번 잘 못 뽑아 놓으면, 통제하기가 너무 어렵다. 투표를 진짜 잘 해야 한다. 총알 보다 투표가 더 강한 것이 민주주의이다.

코로나 시대에 생각하는 생명의 소중함과 우리의 할 일

기고

강순팔 화순군의원



2020년 보다 1천만원이 증가한 수치이다. 만약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모든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쓰여 질 수 있는 돈이다.

사람들은 아프리카 어린이를 돕자고 하면 우리나라 아이들도 못 돕는데 무슨 아프리카 아이들이냐고 한다. 동물권을 얘기하면 인권도 이 모양인데 무슨 동물권이냐고 한다.

그러나 아프리카 어린이나 대한민국의 어린이를 돕는 일은 '사랑이라는 인자'가 같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다.

우리는 사회의 약자를 돕자고 하며 어려운 이들에게 복지의 손길을 내민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고 약한 생명체는 바로 우리와 더불어 사는 말 못하는 동물들이다.

좋은 주인을 만난 반려동물이나 우리의 주변을 떠돌며 쓰레기를 뒤지는 불쌍한 생명들 모두 우리사회의 약자이며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미증유의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 고통스런 요즘, 코로나 발생의 원인을 따져보자면 박쥐라는 동물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신종플루'도 말을 바꾸었을 뿐이지 '돼지열병'의 다른 이름이며 '메르스'도 낙타로부터 기인하지 않았던가.

지구의 역사상 인류가 동물과 공존하지 않았던 적은 없었다. 지금이라도 동물과 더불어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일은 우리가 당면한 과제라 생각한다.

우리 의회가 다루고 있는 예산중에 동물과 관련된 예산도 꽤 비중을 차지한다. 길고양이 증성화사업으로만 525만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비용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이는 지난해에 비해 100프로가 늘어난 비용이다. 길고양이 줄이려는 노력이 없으면 점점 늘어날 것이다. 본래 고양이는 야생동물인바 길고양이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다. 사람이 키우다 버린 것이다.

코로나로 어려워진 경제사정으로 재난지원금을 받는 가운데, 화순군만 해도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1백5만원,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1천2백2십5만원, 길고양이 증성화 수술비 5백2십5만원 등 총 7천8백3십5만원을 2021년 본 예산에 올리고 의회는 의결했다. 이는

이미 발생한 유기동물들을 위한 일뿐 만 아니라 많은 군민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이 현실에 맞춰 반려인과 반려동물들을 지원 하는 일 또한 지자체가 해야 할 대 군민 봉사이다. 이 모든 일들은 군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기도 한데 이 사업의 본질은 예산의 지원과 함께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시키는 일이다. 생명을 소중함을 가슴으로 느끼는 사람은 동물을 함부로 키우지도 않고 함부로 버리지도 않으며 그들의 서식지를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서식지를 잃은 박쥐는 사람 사는 곳으로 들어 올수 밖에 없고 중국처럼 박쥐까지 식용하겠다는 시장에서 팔고 산다면 코로나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만약 살 곳이 없는 길고양이가 남극으로 쫓겨나 남극에 적응해 정착하게 된다면 지구의 생태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최근 화순군의회와 화순군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현실과 코로나 사태의 깨달음을 반영하여 동물의 생명보호는 물론 반려동물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동물보호조례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행정기관은 군민의 삶의 질을 평화롭고 행복하도록 유지시킬 책임이 있다. 이에 의회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기고 보이스 피싱, 먼저 의심하고 전화 끊고 반드시 확인해라

친구에게 돈을 상환한다며 2,000여만원의 기약을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전달하였음에도 "설마, 보이스 피싱 피해자라고요. 아니야 내 대출상환 한거야"며 한동안 자신을 책망하는 피해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경찰관으로서 무거운 사명감과 함께 허탈감을 느껴본다. 최근 우리군에서 발생한 일이라 더더욱 안타깝다.

이렇듯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이래 지난해까지 전국 누적 피해액만 1조5000억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 지난해에는 3만 1,681건의 범죄가 발생했고 피해금액은 약 7,00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한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다. 과거 어설픈 연변 사투리로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하던 보이스피싱 일당을 떠올린다면 큰 오산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연세가 있는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편견이 있는데, 절대 아니다. 누구나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은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2020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 연령비율은 20대 이하가 16.8%, 30대가 13.9%, 40대가 24.3%이며, 50대

가 29%로 가장 많았고 60대는 13.2%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보이스피싱 범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먼저 자금이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전화는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 또한 경찰·검찰과 같은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금이체를 요구하며 하는 거짓말은 다양하다. 정부기관을 사칭해 본인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며 안전한 곳으로 돈을 보내야 한다고 말하는 게 가장 대표적이다. 최근 우리군에서 발생한 피해사례를 검토해보면 현재 갖고 있는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줄 테니 예치금을 먼저 보내 달라고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진화된 보이스피싱 범죄는 회사에 채용이 됐다며 은행계좌와 비밀번호나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수법 중 하나이다. 급여계좌 등록은 실제 취업 이후 출근 시에 이뤄지는 절차다. 이때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만 필요하지 통장 비밀번호까지 회사가 물어보진 않는다.

또한, 출처 불명의 문자메시지나 유선으로 특정 앱을 설치하라고 제안할 경우도 다반사다. 특히 금융당국 직원이라며 앱을 설치하라고 하는 경우는 보이스



피싱 확률이 100%다. 앱을 통한 피싱은 스마트폰 자체가 범죄자에게 넘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잘 모르고 범죄자들에게 돈을 송금했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은행창구 직원을 찾아 문의하면 된다. 은행에서는 현재 '자연인출' 제도가 시행 중이다. 100만원 이상 입급한 경우 최소 30분간 인출이 제한된다. 이 시간에 112로 신속히 신고하여 절차를 밟으면 범죄자의 추가적인 인출을 막을 수 있다.

이와같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보이스 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려면 '설마 내가 당할까' 하는 정신은 절대로 금물이다. '끝없이 의심하고, 전화 끊고 한숨을 돌리고, 반드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의 3대 원칙임을 꼭 명심해야 할 것이다.

강진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사 민 동 환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견뎌낼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견된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호남신문사

● 후원 계좌 농협 301-0262-7951-61 우체국 500330-01-007591 예금주 (주)에이치엔프레스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키야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기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기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